

2014년도 국외연수 보고서

- ◆ 기 간 : 2014. 9. 11 ~ 9. 16 (5박 6일)
- ◆ 연수단 : 21명 (의원 15명, 수행직원 6명)
- ◆ 연수국 :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서대문구의회

□ 목 차 □

I . 연수개요.....	1
II . 연수일정.....	2
III . 연수국 소개	
1. 싱가포르	3-8
2. 홍 콩	9-13
3. 마카오	13-15
IV . 주요방문지 소개	
1. 싱가포르 장애인 협회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15-16
2. 싱가포르 상하수도 처리시설관(NEW WATER)	17-18
3. 홍콩 폐기물 관리시설(ECO PARK)	19
4. 홍콩 도시재생국 (Urban Renewal Exploration Centre).....	20
V . 연수후기	21-24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한 의원의 국제화 능력 배양
- ▷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관광 인프라 관련 모범사례 수집
- ▷ 방문국 복지시설 및 도시재생정책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활용

2. 기간 및 방문국

- ▷ 연수기간 : 2014. 9. 11(목) ~ 9. 16(화) 【5박 6일】
- ▷ 연수국가 :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3. 주요 방문도시 및 시설

-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장애인협회(HWA), 상하수도 처리시설(NEW WATER)
- ▷ 홍콩 : 환경관련시설(ECO PARK), 도시재생국(UREC)

4. 연수단 구성 【총 21명 - 의원 15명, 수행직원 6명 】

연 번	소 속(직위)	성 명	연 번	소 속(직위)	성 명
1	의 장	류상호	12	재건위(위원)	서호성
2	부의장	홍길식	13	재건위(위원)	이기돈
3	운영위(위원장)	김호진	14	재건위(위원)	김순길
4	행복위(위원장)	박상홍	15	재건위(위원)	윤선경
5	재건위(위원장)	이기수	16	사무국(의정팀장)	최동명
6	행복위(부위원장)	이진삼	17	사무국(전문위원)	김창범
7	재건위(부위원장)	박경희	18	사무국(비서실장)	정용균
8	행복위(위원)	장숙이	19	사무국(주무관)	김형철
9	행복위(위원)	이경선	20	사무국(주무관)	이은미
10	행복위(위원)	황춘하	21	사무국(주무관)	김용진
11	행복위(위원)	김혜미			

II.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연 수 내 용
제1일 9/11(목)	인 천 싱가폴	CX417	10:20 19:10	인천국제공항 출발 싱가폴 도착
제2일 9/12(금)	싱가폴		전일	싱가폴 장애인 협회 방문 싱가폴 상하수도 처리시설관 견학 쥬롱새공원 견학 야간 사파리 방문
제3일 9/13(토)	싱가폴 홍 콩	 CX716	 22:05	싱가폴 유명건축물 답사(래플즈시티, 썬택시티 등) 가든 바이더 베이 견학 (클라우드더 포레스트돔&플라워돔) 홍콩 도착
제4일 9/14(일)	홍 콩 마카오	페리	전일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및 소호거리 견학 세나도 광장 및 성바울 성당 견학 마카오타워, 원호텔 분수쇼, 베네시안 리조트 탐방
제5일 9/15(월)	홍 콩		전일	장애인 재활시설 방문 환경관련시설 방문(eco park) 빅트리아 피크 견학 몽콕야시장 방문
제6일 9/16(화)	홍 콩 인 천	 CX418	14:25 18:55	영화의거리, 침사추이 시내탐방 홍콩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소개

1. 싱가포르 (Singapore)

▷ 국가개요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 공화국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도시 국가이다.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분리되어 있다.



- ◇ 공식국명 : 싱가포르(Singapore)
-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 언 어 :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 ◇ 인 구 : 546만명
- ◇ 면 적 : 697km²
- ◇ 종 교 : 불교, 이슬람교, 도교
- ◇ 1인당 GDP : 52,917달러(2013)

181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현 싱가포르 남부에 개발한 항구가 시초이다.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와의 다툼 끝에 결국 연방을 탈퇴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

독립 당시 인구는 160만명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2010년에는 520만명에 이르렀다. 20세기 후반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이며, 정유시설과 금융산업은 세계에서 각각 3,4번째로 크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해 싱가포르 넓이의 500배에 달하는 옛 중중국 말레이시아를 총 경제규모로도 추월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5만달러, PPP 환산 국민소득은 6만달러에 달하며, 1인당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정상권이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692.7km²로 한국의 서울보다 조금 넓고, 인구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 546만명(2013년 말 기준)이다.

▷ 역 사

싱가포르에 관하여 역사적인 기술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3세기의 중국 문헌으로, "Pu-luo-chung"이라고 나온다. 7세기 이후 스리비자야 왕국에 속하며 자바어로 "바다 마을"이라는 뜻의 어촌 "테마섹"(Temasek)이라 불리었다. 복수의 항로가 합류하는 말레이반도의 끝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이 더해져 다양한 나라의 선박이 기항하는 등, 테마섹은 중요한 무역도시로 떠올랐으나, 이후 14세기경에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다. 1617년 말레이시아-포르투갈 전쟁 중에 포르투갈 군대가 싱가포르를 불태웠다. 이후 16세기 동안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으며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그저 어민과 가끔씩 해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경이 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영국의 인도 정부가 1858년부터 이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1867년부터는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1869년까지 싱가포르의 인구는 100,000명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침공하여 점령하였다. 6일간 영국군은 치열한 방어를 하였으나, 1942년 2월 15일 항복을 한다. 일본은 싱가포르를 쇼난(昭南)으로 개명하고 1945년 9월 12일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다.

1959년에 리관유(Lee Kuan Yew) 수상과 유소프 빈 이삭(Yusof bin Ishak)에 의해 자치주가 되었으며, 1962년에는 말레이시아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계인 싱가포르와 인구의 대부분이 말레이인인 말레이시아와의 마찰로 2년 후 독립하게 되고, 1965년 8월 9일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였다. 유소프 빈 이삭이 초대 대통령으로 리관유가 초대 수상으로 계속 집권하였다.

새로운 국가로서 싱가포르는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1959년부터 1990년까지 리관유 수상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에 고촉통(Goh Chok Tong)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에는 리관유 전수상(현재 국가자문)의 큰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다.

▷ 정치제도

성문헌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내각책임제이다. 대통령직도 있으나 상징적인 존재로서 일부 거부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으로 총리가 내각을 운영한다. 1991년 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 정당

1959년부터 현재까지 리관유가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집권하고 있다. 야당으로 싱가포르 노동자당, 싱가포르 민주당, 싱가포르 민주연합 등이 있으나 여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정권의 힘(검열, 선거구 조작,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존재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강력한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 행정 구역

크게 서부, 북부, 북동부, 동부, 중부의 5개 지역으로 나뉘며 쿼즈타운, 센트럴에리어 등 66개 도시 계획 구역으로 이루어진다.

▪ 사법

싱가포르의 모든 사법적 권한은 싱가포르 헌법에 의해 대법원과 그의 부속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법원(the Court of Appeal)과 고등 법원(the High Court)으로 구성되며 항소심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고등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원심과 상소심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항소심 판사, 사법위원(Judicial Commissioners)과 고등법원 판사는 총리가 제정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는 판사를 추천하기 전에 대법원 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법률

싱가포르의 법은 대영제국과 영인도의 법 그리고 영미법(코먼로)에 기반하고 있으나,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다민족 · 다종교 사회인 싱가포르의 국익을 이유로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표현의 자유)은 제한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거운 벌금 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까지 태형이 존재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며, 앰네스티에서는 싱가포르를 사형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대외(對外) 관계

일본과는 2002년 초 전면적인 경제협력협정인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동반자협정 (日本・シンガポール新時代經濟連携協定, 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JSEPA)"을 체결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일본에 있어서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 대상국이 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동남아순방(2002년 1월)에 맞춰 체결된 JSEP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괄하고 금융,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양국 무역량의 98% 이상에 상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2000년 금액 기준)되어 일본의 싱가포르 수출은 무관세, 싱가포르의 대일 수출은 94%가 제로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1973년 협정을 기본으로 2005년까지 바탐 섬 북부 지역에 관한 분쟁을 완결하기로 합의했다.

▪ 대한(對韓) 관계

대한민국은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경제대표부를 개설했다. 이 대표부는 1971년 7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가 1975년 8월 대사관으로 승격됐다. 양국은 1972년 항공 협정을 체결했다. 1979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한데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 건물을 한국 건설업체가 건설하였다.

양국은 서로 10위권 내의 교역 상대국이며, 주로 전자전기제품, 기계류가 수출입 품목이며, 특히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에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줄어들었으나 현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대(對)싱가포르 수출은 152억4420만USD, 싱가포르의 대(對)대한민국 수출은 78억4953만USD(각

2010년)에 달하여,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5위의 수출국, 제14위의 수입국이다.

특히 싱가포르 투자청(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은 1999년 잠실 시그마타워, 2000년에는 프라임타워, 서울파이낸스타워, 무교빌딩, 코오롱빌딩 등의 대형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2005년에는 서울 역삼동의 45층짜리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하였다.

▷ 경 제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 자본주의이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1770억\$로 43위의 해당하는 경제규모이며, 1인당 GDP는 37000\$가 넘는 부유한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이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콩, 대한민국, 중화민국과 함께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4마리 용(NISE)로 불리곤 한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06년에는 9천7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음식 축제, 칭게이 축제 등의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GDP가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

한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한 “플랫”(Flat)이라고 불리던 대규모 정부 공급 아파트 정책이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유명하다. 미디어, 사회간접시설,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정부 소유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은 1994년 4월 1일부터 3%로 부과되었다. 이를 통해 16억 달러의 정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GST는 2003년에는 4%로 2004년에는 5%로 인상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7%로 인상되었다. 싱가포르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약 20%다.

▷ 문 화

싱가포르는 원래 살던 말레이 민족 인구나 3대에 걸친 중국인, 이민 온 인도인과 아랍인 그리고 현대에 이민 오거나 현지 파견된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만들어 내는 복합적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영국 식민지 문화와 페라나칸(Peranakan, 해협 중국인 사회)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 들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싱가포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영어는 식민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국식 영어이다. 여기에 다양한 중국어 방언, 말레이어, 인도어가 뒤섞여서 싱글리쉬라는 일종의 영어 방언을 만들고 쓰게 되었다. 교육 제도에서 영어가 주된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문학은 주로 영어로 쓰인다.

식민지시대에 이민자를 분리수용하는 정책 때문에 리틀인디아나 차이나타운같은 민족성이 나타나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이주민들이 자국에서 가져온 건축적 영향력이 잘 보존되어 건축물을 통해 각 민족의 성격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인 구역에서는 여러 층으로 된 탑들, 용 형상 구조물과 조각품들, 건물 외벽에 붉은색과 황금색을 많이 사용하는 등 중국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만날 수 있다.

중국인 이주자들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불교 사원을 건설하기도 했는데, 쌍림(Siong Lim, 雙林)사원이 그것이다. 이주민들이 가져온 다양한 종교의 사원이 시내에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관용을 지닌 국가의 본보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나, 수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 홍콩 (Hong kong)

▷ 국가개요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남동부에 있는 특별행정구이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상강) 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홍콩 섬(香港島)과 주룽(九龍)과 신제(新界) 및 그 밖의 230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 ◇ 공식국명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 ◇ 언어 : 중국어, 영어
- ◇ 인구 : 690만명
- ◇ 면적 : 1,100km²
- ◇ 종교 : 불교, 도교, 기독교
- ◇ 1인당 GDP : 38,604달러(2013)

▷ 역사

홍콩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까지 그 기원이 올라간다. 이 지역은 진시황제 시절에 첫 번째로 병합되었으며, 당나라와 송나라 당시 무역항과 해군 기지로써 활용되었다. 이 지역의 첫 번째 서구인은 1513년에 상륙한 포르투갈인인 호세 알바레스(Jorge Álvares)이다. 영국과의 접점은 동인도 회사가 광둥 성 근처 도시에 무역항을 건설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1839년에 청나라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아편 수입 금지안은 중국과 영국 사이의 제1차 아편 전쟁을 낳았다. 홍콩 섬은 1841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로부터 홍콩 섬이 정식으로 양도되었다. 이듬해 영국은 빅토리아 시티의 건립과 함께 홍콩총독부를 신설하였다. 1860년 중국의 제2차 아편 전쟁 패배 이후에 주룽(구룽)이 베이징 조약 하에 영속적으로 영국에 귀속되었다.

19세기의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이었다. 홍콩은 영국의 물산 집산지로써 활용되는 자유 무역항으로 선언되었고 주룽 반도-광둥 성간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또한 영국식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870년대~1880년대 이후 홍콩은 아시아의 영국령 중에

서 가장 빅토리아 문화가 개화된 지역이 되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 제국은 홍콩을 점령했다. 홍콩이 일본 제국에게 지배 받는 동안 시민들은 강제 배급에 의해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전쟁 국채 발행을 위한 통화 환율 정책의 강제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전쟁 전 홍콩의 인구는 160만이었으나, 영국이 식민지 지배권을 회복한 1945년 8월에는 거의 60만으로 줄었다.

1949년 중국 대륙에서 중화민국이 무너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많은 중국인이 이주하였다. 197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 개혁안을 시작했을 때, 홍콩은 중국 대륙에 투자되는 외국 자금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 이듬해 선전 경제 특구가 설치되었고,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홍콩의 산업은 제조업과 섬유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업종으로 대체되었다.

1984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을 영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은 홍콩이 50년 동안 법과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 구역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양도 후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홍콩 기본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 홍콩 주권 양도는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치러졌고 통킹화는 홍콩의 첫 번째 홍콩 특별 행정구 행정장관으로 취임하였다.

▷ 정치제도

홍콩의 정치 제도는 대체로 영국이 통치했을 때의 행정, 입법, 사법을 답습했고 다만 서로 예측되지는 않았다. 특별행정구 성립 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전혀 다르게 유지되었다. 홍콩 기본법은 덩샤오핑이 구상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이념(우물물은 강물을 범하지 않는다, 각자 한계를 분명히 하여 서로 범하지 않는다)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 입법, 사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체제에서 분리되어 간섭받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리고, 고도의 자치를 한다”(港人治港)라는 원칙에 따라, 홍콩은 현재까지도 “중국 홍콩”의 이름으로 경제, 무역, 금융, 항공,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등의 영역에서 단독으로 국제 기구에서 관계를 유지, 발전하고 있고, 관련된 협의를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다.

홍콩이 참여하는 기구로는 세계무역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산은행,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모두 14개가 있다.

■ 입법

홍콩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은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이고, 현재 60명의 의석이 있고, 임기는 4년이다. 제3회 입법회 중 60개의 의석 중에 30석은 5개의 지방별로 비례 대표제의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히게 되고, 그 나머지 30명은 28개의 기능별로 단체 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모든 선거 유권자는 지방 직접 선거에는 모든 사람에게 한 표가 주어지지만 기능별로 조직되는 의석은 15만 명의 선거 유권자만이 투표권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홍콩 법제에는 직접 선거 방식의 의원과 기능별로 조직된 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또 행정장관의 비준을 통해서 효력이 생긴다.

2004년 선거에서 성립된 제3회 홍콩 입법회 중에서, 친중화인민공화국 성향의 친건제파(親建制派)가 30석을 얻었고 홍콩의 정치 자유화를 더 중시하는 범민주파(泛民主派)는 25석을 얻었고, 5석은 나머지가 얻었다. 정당으로 보면, 친건제파 소속 민주건향협진연맹(民主建港協進聯盟)이 입법회의 제1당이고, 그 외 자유당(自由黨) 및 민주당(民主黨)이 있다.

▷ 경 제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대국이다. 수출입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바쁜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이고, 승객수와 국제 화물 처리량으로 세계에서 변화한 공항 중 하나이다. 대외 은행 교역량으로 홍콩은 세계 15대 은행센터이다.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홍콩 주식 시장 총액은 2006년 뉴욕을 제치고 세계에서 런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1인당 GDP)은 31,799달러이고, 1인당 실질 구매력(1인당 PPP)은 45,277달러이다. 홍콩의 1인당 PPP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이다. 2010년 각 산업을 종합해 보면 국내생산총액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92.3%로 가장 높고, 산업 비중은 7.6%, 농업 비중은 0.1%이다.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및 자유 방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홍콩을 자유 방임 경제의 사범이라고 보고 있다. 2006년 9월 11일 선포한 “소 정부 대 기업 정책”(positive non-interventionism)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로, 정부의 경제 정책 이념은 여전히 시장 역량에 의해서 경제를 주도하게 하고 있었고, 시장 발전을 조작하고 이끄는 것은 피하고 있다. 상업 규정 관리는 간소화하고, 정부는 청렴결백하고 고효율, 저(低)세율, 세제(稅制)의 간소화, 법제 건전화, 재산권 관념의 견고화, 등의 요소들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게 홍콩은 시장 경제 운영의 선두 주자로 믿게 하고 있다. 미국 전통 기금회는 1995년에, 캐나다 프레이저 학회는 1996년에 발표한 자유경제체제보고서에서 줄곧 홍콩을 세계 1위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 정보유통, 고효율의 조립 가공, 서비스까지 홍콩의 경제에 공헌한다.

홍콩은 비좁은 땅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해, 무역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영국은 홍콩을 할양 받은 뒤 1841년 6월 7일에 자유항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상선 자유 진출을 허가했다. 홍콩은 편리한 지리 위치 및 깊은 수심과 넓은 항구의 해항을 이용해서, 중계 무역 물류의 메카로 발전하였다.

1949년 국공 내전을 피해 기술과 자금을 가진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이주하였다. 대표적으로 홍콩 상하이 은행과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있다. 곧 이어 한반도에서 터진 한국 전쟁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 연합에 대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에 서서 참전했기 때문에 1950년대 초 국제 연합이 실시한 수출입 금지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고, 홍콩은 중계항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엔지니어의 창의력 및 거대하고 청렴한 노동력에 의해서, 홍콩은 경공업형 경제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공단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가공 수출 제품으로는 방직물, 플라스틱, 가발, 시계, 전자 부속 등이 있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중화인민공화국은 덩샤오핑의 지도 아래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제조업은 중국 대륙으로 이동하고, 홍콩은 다시 중계항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였다. 금융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갔고, 국제 금융의 중심으로 변화에 성공했다. 홍콩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대한민국, 중화민국,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중 하나로 명성과 명예를 얻었다.

▷ 문 화

홍콩은 때때로 동서양이 만나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는 홍콩의 경제와 교육, 거리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홍콩의 어느 거리에는 불교의 장신구, 중국 한방재, 인조 상어 지느러미를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다른 거리에는 서양 형식의 술집, 성당, 맥도날드, 지난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영화관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배는 1997년 끝났지만 서양 문화는 홍콩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또한 동양의 관례나 풍습, 철학이 남아 있다. 이 도시에서는 세계의 다채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특히 해산물 요리가 가장 인기있으며, 그밖에 여러 나라의 식당들이 찾아볼 수 있다.

홍콩 영화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배우들이 할리우드로 진출하여 스타가 되기도 하였다. 레이시우룽(이소룡), 짜우윤팻(주윤발), 싱룽(성룡) 등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홍콩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 홍콩의 영화 산업은 전통적으로 쇼 브라더스사와 골든 하베스트사가 양대 산맥으로서 이끌어 왔다. 홍콩은 또한 광동 음악의 공연을 하는 술집들이 즐비하고, 이곳은 많은 스타들의 배출장이기도 하다. 가라오케는 홍콩의 빼놓을 수 없는 밤문화 형태 중 하나이다.

홍콩 디즈니랜드 등 놀이시설과 쇼핑, 음식 등이 유명하고 아시아의 교통의 요지인 점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 한해 약 2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최근에는 거의 절반이 중국 대륙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다.

3. 마카오 (Macau)

▷ 국가개요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아오먼 특별행정구(中华人民共和国澳门特别行政区)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인이 처음 정착한 이래 약 45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며 1999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었다.



- ◇ 공식국명 : 중화인민공화국 아오먼 특별행정구
- ◇ 언 어 : 중국어, 포르투갈어
- ◇ 인 구 : 52만명
- ◇ 면 적 : 26.8km²
- ◇ 종 교 : 불교, 카톨릭
- ◇ 1인당 GDP : 91,376달러(2013)

▷ 역 사

마카오는 본래 광동 성 상산 현(현 중산 시)일부였다. 1553년(명나라 가정(嘉靖) 31년) 포르투갈은 현지 관리에게 「짐이 젖어서 육지에서 말리고 싶다」는 구실로 뇌물을 주고 마카오 체류를 인정받았고, 4년 뒤부터는 뇌물을 매년 건네면서 본격적으로 마카오에 눌러앉게 되었다.

1572년부터는 명나라 조정도 매년 500냥의 지대(地代)를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포르투갈인의 마카오 거주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 계기는 포르투갈이 현지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자리에 우연히 조정에서 온 관리가 있었으므로 부정(不正)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한 광둥 성의 관리가 받은 500냥을 부득이 국고에 납입했기 때문인 듯하다.

해적 정벌을 원조한 공적으로 포르투갈인에게 마카오 거주권을 주었다는 설(說)은 18세기에 포르투갈인이 창작한 이야기이다. 처음 정착할 당시 포르투갈인이 도교 사원인 마쭈거(媽祖閣, 아마 사원) 근처에 살았는데, 현지인에게 그곳의 지명을 물으니 현지인은 사원의 이름을 묻는 것으로 착각하여 "마쭈거"라고 알려주었는데, 이를 잘못 알아들어 마카오라고 부른 것이 현재 이름이 되었다.

그 후 마카오는 금, 은, 도자기, 아편 등의 중개 무역과 기독교 포교의 기지로서 번영했다. 포르투갈과 청국이 1887년에 맺은 리스본의정서와 1888년에 맺은 통상우호조약에 따라 정식으로 포르투갈령이 되었지만,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경영하면서 무역항은 쇠퇴했다.

1966년 폭동을 계기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 중국에 마카오를 반환하는 교섭이 시작되어, 반환 시기를 1999년 12월 20일로 하는 협정이 1987년 중국과 포르투갈 사이에 체결되었다. 1993년 3월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아오먼 특별행정구 기본법, 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채택되어, 1999년 12월 20일에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되었다.

▷ 정치제도

일국양제 때문에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 입법기관은 입법회(立法會)이며 직접 선거로 선출된 8명의 의원과 직능 집단을 대표하는 8명의 임명의원 및 행정장관이 지명하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회는 모든 분야에 걸친 법규 정립의 책임을 지고 있다.

▷ 경 제

마카오에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동양의 모나코」라는 별칭이 존재한다. 마카오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으로, 2005년에는 약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마카오를 방문했다. 최근에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방문객이 도박과 관광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되기는 하나, 아직도 홍콩에서 오는 관광객이 가장 많으며 중화민국을 비롯한 아

시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관광 자원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풍경, 역사 유적이거나 사원 등의 명승 사적, 해안의 리조트 등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마카오의 유적들은 '마카오 역사 지구'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있다.

카지노나 토끼 냄새가 나는 토끼인형으로 개들을 자극하여 달리게 하는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비롯한 도박 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밖에 아시아에서 유력한 자동차 경주인 마카오 그랑프리도 개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관광객 등을 위해 마카오에는 100개 이상의 호텔이 있다. 2009년 6월에 코타이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인 시티오브드림즈(City of Dreams)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5년여의 치밀한 프로젝트와 미화 21억 달러라는 상당한 투자 금액으로 시작 전부터 관심을 집중시켰다. 각기 다른 테마를 갖춘 네 개의 호텔로 구성된 리조트의 숙박 시설은 그랜드 오픈에 맞춰 하드락 호텔(Hard Rock Hotel)과 크라운 타워(Crown Towers)가 개장했다.

마카오는 본래 무역업이 번성한 곳이었으나, 홍콩이 국제적 무역거점으로서 발전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쇠퇴했다. 그로 인해 산업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는 직물(織物)을 비롯한 의약품,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 등의 경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불꽃의 생산이 유명하다. 이들 경공업 제품의 90% 전후는 미국이나 홍콩 등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마카오 경제는 관광업에 치우쳐 있고, 또한 관광객이 도박으로 지출한 돈이 마카오 총 GDP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여기에서 얻은 세금이 정부 세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IV. 주요방문지 소개

1. 싱가포르 장애인 협회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싱가폴 장애인 협회는 싱가포르 장애인들의 자립심 증진과, 상호 보완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23명의 선진 그룹에 의해 1969년 설립되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이 기관은 심신장애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1978년 정부기관에 등록되었고 정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초창기에 Singapore Friendship Club으로

등록 되었다가 1975-76년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 장애인협회 홍보 동영상 시청 >



< 장애인 협회 현황 설명 >

싱가폴 장애인 협회에는 현재 약 2,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정규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약 130여명이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는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또한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 현지에는 이곳을 포함하여 총 4개소의 장애인 재활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아무곳이나 편리하게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협회 재활시설 방문 >



< 장애인협회 기부금 전달 >

장애인 협회의 운영은 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싱가포르 소재 대기업들의 기부금과 정부의 펀드레이징(fund-raising[모금활동])을 통한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싱가포르 상하수도 처리시설관(NEW WATER)

하수를 정화해 식수로 사용하는 국가 중 가장 유명한 나라는 싱가포르다. 중수도를 통해 공급하는 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영국,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로 수원이 되는 강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강수량이 많고 19개의 저수지가 있긴 하지만 전체 인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로인해 싱가포르는 인접국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코즈웨이라는 다리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 초부터 매일 15억 9천만 리터의 물을 싱가포르에 공급하고 있는데, 애초에 책정된 물값이 너무 싸서 가격 재조정 협상을 벌인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가 너무 커 국가 간의 감정까지 격화되었으나 현재 2060년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물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물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 하수를 식수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 뉴워터 시설물 전경 >



< 뉴워터 정화시설물 현황 설명 >

하수를 정화해서 만든 물을 「뉴 워터(New Water)」라고 하는데 이는 새로 태어난 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2년부터 사용된 뉴워터는 싱가포르 하루 물 사용량의

1%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물 수요의 15%를 담당하게 되었고 차츰 물 공급의 30%를 차지하게끔 그 양을 늘릴 계획이다.

뉴워터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후 미세 여과장치 및 역삼투압 장치, 자외선 소독 및 미네랄 투입의 3단계 처리과정이 더해지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증류수 만큼 깨끗한 물이 된다. 모든 정화과정을 마친 뉴워터는 다시 저수지로 보내져 그 곳 물과 섞이고 정화과정에서 모두 제거된 광물질을 함유한 맛있는 식수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뉴워터 공장은 베독(Bedok), 셀레타(Seletar), 크람지(Kramji)와 울루 판단(Ulu Pandan)에서 운영중이다. 이들 처리장은 매일 3억2천3백만 갤런 수준의 물을 생산하여 일부는 물제조공장으로 보내지며 나머지는 산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뉴워터 홍보 체험센터 방문>



<서대문구의회 방문기념품 전달>

하수를 정화해 음용수까지 얻어낸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싱가포르의 뉴워터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물관리 사례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들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 홍콩 폐기물 관리시설(ECO PARK)

ECO PARK는 환경보호 부서의 폐기물 관리시설 중 하나로 20헥타르의 부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홍콩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ECO PARK 방문자 센터 설명 >



< ECO PARK 방문자 센터 방문 >

ECO PARK 방문자 센터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폐기물 감소,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멀티미디어 전시 및 영화, 가상 3차원 기술을 통한 입체 매립지 모델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중소기업의 간단한 소개와 분리수거를 권장하는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 ECO PARK 방문자 센터 방문 >



< ECO PARK 방문자 센터 방문 >

4. 홍콩 도시재생국(Urban Renewal Exploration Centre)

홍콩 도시재생국(UREC)은 학생, 지역 사회단체 및 일반대중에게 도시재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홍콩섬 성완에 문을 열었으며 정부기관이 아닌 정부의 에이전트(Agent)업체로서 낙후된 홍콩 건축물들의 리모델링 업무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신도시 건설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 도시재생국 홍보 동영상 시청 >



< 도시재생국 현황 설명 >

홍콩 도시재생국(UREC)은 홍콩내에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11만여명의 영세민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홍콩을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도시계획 중 하나인 구룡반도 쿤통지역의 신도시 건설사업을 2024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도시재생국 홍보센터 방문 >



< 서대문구의회 방문기념품 전달 >

V. 연 수 후 기

한국보다 면적은 작지만 1인당 GDP규모는 한국보다 앞선 작지만 강한 대표적인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해외 연수국으로 선정하면서 5박 6일간의 일정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각 나라를 방문하면서 경험하고 느낀점들을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접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싱가포르의 교통정책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직후 도시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비효율적인 공공 교통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육상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독특한 교통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향후 10년부터 15년간의 육상 교통 개발의 지침이 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2020년까지 오전 피크 시간대의 공공 교통수단 이용률을 70%대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차량의 총량규제

차량 수의 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1990년 차량할당제도(Vehicle Quota System)가 도입되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증서(COE : Certificate of Enrolment)의 취득을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도로의 정비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신차 등록수의 증가율을 1.5%~3%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소유권 증서의 신규발행수를 제한함으로써 자동차 총량을 조절하고 있다. 신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육상교통청(LTA)이 매월 2회 실시하는 소유권 증서 공개입찰에 응모하여야 하며 입찰액은 경기 상황, 소비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유권 증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0년간이며 양도가 불가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증서를 신규로 취득해야만 한다.

◇ 차량의 이용억제(ERP 시스템)

차량 통행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에 시내 중심부의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20분 단위로 요금 설정이 변경되어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일수록 통행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전자가 통행료의 지불을 피해 다른 경로를 선택하거나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정체를 억제하고

통행료가 불필요한 시간대에 차량운행을 선택하여 피크시간대 차량정체를 완화시키고 있으며 연 4회 통행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오프 피크 카 제도(Off Peak Car Scheme)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차량과 구별하기 위해 적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주행하며 주행가능 시간대는 평일 19:00~07: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제한되는 대신 도로세가 경감된다. 주로 평일 통근시간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통근시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차를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한시간 외에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허가증을 재구입해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면 해당일 주간에도 운전이 가능하다.

◇ 파크&라이드 제도(Park & Ride Scheme)

도시지역 정체 완화책으로 교외에서 근처의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까지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고 공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해 도심부로 통근하는 제도이다. 이용 희망자는 역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지정 주차장 중 1개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시사점

현재 한국의 공공 교통수단 이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버스중앙차로제, 혼잡통행료 징수,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시민참여 부족과 실효성 없는 단속관리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차량 총량규제등과 같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규제와 더불어 시민이 수긍할만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콩의 도시재생정책

◇ 도시재생정책의 배경

홍콩은 1997년 중국반환 당시 내외부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하였다. 현재 아시아의 세계도시(Asia's world city)를 모토로 제2의 도약을 준

비하고 있으며 홍콩의 도시개발정책도 이러한 금융도시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구룡반도에서 바라보는 높이 솟은 마천루, 침사추이 워터프론트는 홍콩의 상징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홍콩은 심각한 도시슬럼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1970년대 도시확장기를 거치면서 공급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되면서 발생하였다.

◇ 도시재생정책의 전략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정부는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을 내놓게 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친화적 도시재생(People-oriented approach)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생지역의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영향조사의 실시

사회영향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조사다. 지역의 산업활동, 복지시설, 역사와 전통을 조사하여 잠재적인 사회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사회영향조사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조사를 바탕으로 한 거주민 개개인에 대한 조사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재개발이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한다. 이 사회영향조사가 주민친화적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팀 운영

도시재생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 사회사업가로 이루어진 사회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기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 합리적 보상정책

재생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시장가치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도 주변지역의 공공주택을 알선해주거나 재정착을 위한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시사점

홍콩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1) 사업을 소규모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추구하며 2) 지역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고 3)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과 정부사이에 효과적으로 재생사업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물론 우리의 도시재생사업과 완전히 다를 순 없겠지만 앞서 설명한 사회영향평가와 사회 서비스팀 운영 및 효과적 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도입은 우리의 재생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